
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자	2025년 4월 8일(화)	
담당 부서	치매정신 건강과	담당자	김해영 ☎728-6575 최솔지 ☎728-6577
사진		있음(16시 제공)	보도시점

**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, ‘치매 조기 검진 협력 의사’ 추가 위촉**

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(센터장 차남희, 이하 센터)는 8일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 강화를 위해 인천적십자병원 신경과 최석홍 과장을 ‘치매 조기 검진 협력 의사’ 로 추가 위촉했다.

이번 위촉을 통해 센터는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 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, 임상 평가와 보호자 면담 등 전문적인 진단검사를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.

‘치매 조기 검진사업’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검사는 총 3단계로 이뤄지며, 1단계에서는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 여부를 확인하 고, 이상 소견이 있을 시 2단계 진단검사가 진행된다. 이후 협력 의사의 소견에 따라 3단계 뇌 영상 촬영이나 혈액검사 등의 감별검사를 협 약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다.

센터는 이 외에도 찾아가는 조기 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고,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.

센터 관계자는 “이번 협력 의사 위촉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 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말했다.